

中東에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

1. 요단강변에 부는 화해의 훈풍

오늘날 인류역사는 세기적인 대전 환기를 맞고 있다. 1989년 東 유럽 전역에 자유화의 돌풍이 휘몰아쳐 순식간에 동구권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구소련을 해체시키면서 두터운 냉전벨트를 깨뜨려 버렸다.

이제는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극동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해가 깨지는가 했더니 中東 아랍세계가 먼저 변화의 요동을치고 있다. 이 변화의 조짐은 1991년 2월 중동전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걸프전쟁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영원의 앙숙으로 반세기동

안 살아왔었다. 세계제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을 비롯한 戰勝國이 중동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킴으로써 그들은 거의 운명적으로 불구대천의 적국이 된 것이다. 서로가 상대를 전멸시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원한 속에 그들은 제4차에 걸친 中東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원한관계는 그 골이 더욱 깊어지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에 순응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역사의 교훈에 따라 스스로 발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 하면 80년대말 동구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전세계가 지각변동의 대요동을 칠 때에도 입헌군주제로서 왕족통치를 하고 있는 중동제국들은 별 동요없이 지내왔던 게 아닌가?

그러한 中東 세계에 조금 놀라운



權 燦
〈駐 쿠웨이트 대사〉

평화의 무드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국제화의 물결이 시대조류를 이루면서 21세기적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 중동의 모래 사막 위에 화해의 훈풍이 불고 있음은 어찌된 영문인가? 진정이 시대전환적인 변혁의 시대에 요단강변에 불고 있는 이 훈풍은 中東 전역에 걸쳐 영원한 평화와 개방을 가져올 것인가

필자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대아랍신문 1면 중앙 상단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글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쿠웨이트 국내 최대 아랍신문에 자신의 고충과 진솔한 예기를 피력한 글을 기고한 것이다. 정말 이 글은 필자에겐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보다 더한 것은 아랍신문이 최대의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글을 1면에 실고서도 그 아랍신문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이 조선일보 1면에 자기의 고충을 글로 기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2~3년전 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현재 中東 아랍인의 의식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과거에 이렇게 급변하는 사실을 필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그의 글에서 중동 평화의 길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솔화하였다. 왜냐하면 평화협상 당사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정부 지도자들이나, 실제로는 점령지인 가자 지역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더 큰 관심과 관여를 하기 때문이라

2. 정보화시대의 외교협상

사실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론의 새 역할은 실로 감명적이라 말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가 국가정책 결정에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



는 것이다. 즉 팔레스타인이 정식으로 국가를 창설함과 동시에 그들 국민들은 그 나라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여론 당사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한 관점에서 중동평화협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회담 주역들이 그들 해당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외교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예기다. 원래 외교는 국내정치 연장선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분명 외교의

고유영역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교가 국내여론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외교협상자들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으면 협상 그 자체를 성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대한 양자간 협상은 최근까지도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지도자간의 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 점령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단체가 수립되고 정보화 시대가 확산됨으로써 가자 지역 주민들이 여론의 주체로서 전에 없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자 지역 자치에 새롭게 임명된 한 관리는 과거 20년간이나 정치범으로 감옥생활을 하다가 출옥한 호전적인 사람인데, 그는 TV에 출연해서 가자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마치 서구 민주주의 지도자처럼 합리적인 자치화 행정의 방향을 설명하며 대중 매체에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중동세계에 일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정보확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론의 힘이 중동의 평화 협상을 촉진시키고, 개방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대 전환적인 의식 개혁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모름지기 중동세계에는 변화와 개방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겠다. 이 바람은 냉전시대의 찬 바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21세기적 화해와 협

력의 바람인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여론의 바람은 외교 현장에서 정부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분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간의 외교에도 더 큰 목소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론의 힘은 물리적인 힘으로 막기는 어렵다. 여론을 강제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예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에서 이러한 여론의 힘이 없이는 그렇게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시리아간의 협상에서도 역시 시대적 여론이 협상의 후견인으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이스라엘-시리아간의 협상의 재개를 위해 상호 양보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시리아 측은 보다 강경자세로 화해의 바람을 막고 있는 듯 보인다. 즉 이스라엘이 조건 없이 골란고원으로 부터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주장이다. 그런 연후에야 시리아는 단계별 철수문제를 이스라엘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수락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협상은 협상대표들간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언론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의해 그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3. 중동평화 협상의 성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미 가자지역과 요단강 서안지역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인도해주었다. 이스라엘은 8.24자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아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이 공식으로 요단강 西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PLO측과의 평화협상의 결과로 얻은 첫 성과이다. 양국은 금년 5월에 가자지역과 요단강 西岸 여러고지역등 양쪽지역의 인도협상에 성공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수립의 길을 터주었다.

양국은 금년 8월 열린 카이로 실무회담에서 요단강 西岸 여러고 지역의 교육, 건강, 사회보장, 관광, 조세등 5개 분야에서 중요 권한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인도해 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이스라엘측의 태도는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이 흥미롭게 표현했는데, 굳이 팔레스타인에게 이스라엘의 교육을 강요하기 보다는 팔레스타인식의 교육을 맡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이스라엘은 금년 8월 29일자로 모든 자치행정이 가능하도록 학교건물을 인계하였으며, 그 건물 위에 팔레스타인의 국기가 펄럭이고 아라파트 의장의 사진이 걸리게 된 것이다. 명실상부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수

립된 것이다.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정치범 석방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5천여명의 죄수가 풀려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5천여명의 정치범들이 이스라엘감옥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측의 이유는 아직도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그들과 평화 얘기는 어렵다고 석방 불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급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제일 중요한 요체는 이스라엘의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는 대신에 팔레스타인의 반 이스라엘 헌법규정을 수정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상호인정과 공존의 대원칙이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국은 7월 25일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 46년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은 그들의 공동성명에서 수십년간의 반목투쟁을 중지하고 유혈과 고통을 마감시키자는 결의를 표명한다면서 중동지역의 전체의 영원한 평화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후 양국은 굳게 닫힌 국경선을 상호개방하여 자유스러운 왕래를 시도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워싱턴에서 화려한 평화협정 서명식을 가진 며칠 후 유럽방문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국왕이 적접 운전하는 전용

기로 이스라엘 영공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측이 이를 미리 감지하고 이스라엘 전투기 2대를 발진시켜 국왕의 비행기를 엄호해 준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까지 느껴졌다. 영공통과시 이스라엘의 라빈총리는 무선교신통신에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후세인 국왕에게 인사까지 했는데, 이것은 중동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 단면들이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국은 금년 8월 31일 양국간의 물분쟁을 해결하는 대운하건설공사 계획도 발표했다. 즉 요르단 계곡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33억달러 규모의 대운하 건설에 일본과 독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이 공사가 완성되는 날, 양국의 수자원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미 골란고원으로부터도 철수할 의사를 비쳤다. 이는 시리아와의 평화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로 이스라엘이 수년전까지만 해도 골란고원에 관한 한 뼚의 땅도 돌려주지 않겠다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가?

시리아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철수문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전쟁때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영토인데, 그후 4반세기에 걸쳐 양국

이 서로 양속이 되어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었던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은 최대 현안인 골란고원 철수문제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했다. 전세계가 개방화 정책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 조류에 중동이라고 그냥 버티고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4. 미래 지향적 평화공존

중동평화협상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은 단지 중동의 평화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듯 싶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평화구조는 상호간 경제교류와 무역,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평화스러운 중동, 인간공동체의 형성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중동에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는 아랍측이 이스라엘의 접근을 허용하고 과거의 적대관계를 관용하는 자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일고 있는 현격한 변화현상이다. 현재 중동 아랍인들간에는 그룹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무역과 투자상담을 해 보자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쿠웨이트를 비롯한 아랍제국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국교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정부입장은

아니다. 쿠웨이트의 경우 이스라엘 국민들보다 팔레스타인인을 더 혐오하고 있다. 그 연고로 걸프전 이후 약 40여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쿠웨이트 국외로 축출해 버렸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해 왔을 때 쿠웨이트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은 총뿌리를 쿠웨이트 국민들에게 들이대고 실제 협박하며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고 쿠웨이트인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제 중동지역에는 과거 아랍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간의 극한 대립은 완화되고, 현실정치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국가간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다. 아랍인의 두뇌 속에 「이스라엘 반목」은 이제 조금씩이나마 사라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과 차례로 평화협정을 성공시켰고, 이제는 시리아와의 평화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8월말에는 레바논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에 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레바논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요르단 방식의 평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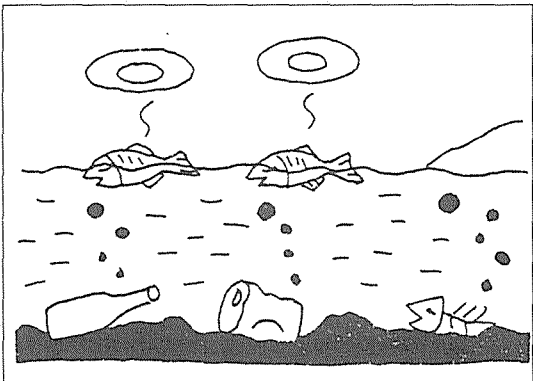
의를 희망한다고 접근하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은 과거 반세기 동안의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전쟁 없는 평화만의 인류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깊은 뜻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는 *CONFRONTATIONAL COEXISTENCE* 관계에서 *COOPERATIVE COEXISTENCE*로 변해가는데 아닌가 싶다. ♣

환경상식

부영양화

부영에서 나오는 개수물이나 음식찌꺼기, 그리고 분뇨는 그 자체가 유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유기물들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이른바 부영양화(富營養化)라는 현상을 진행시키게 된다. 부영양화란 말 그대로 물의 영양분이 너무 풍부하다는 뜻이다. 가정하수의 음식찌꺼기나 분뇨 등의 유기물질이 물속에서 분해될 때는 산소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유기물질이 너무 많으면 결국 물속의 산소부족 사태를 야기시키게 된다.



에도 여러 형태의 오염문제가 발생한다.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하천이나 호수의 바닥은 까맣게 되고 공기방울이 떠오르게 되며 악취가 풍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천이나 호수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이나 인산염과 같은 비료성분에 물에 녹아 나온다. 만일 한강에서 물고기의 폐죽음을 보았다면 그 물에는 전보다도 많은 양의 중금속이나 인산염이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그 물에서 잡히는 물고기에는 많은 양의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음식찌꺼기 뿐만 아니라 주방용 합성세제도 질소나 인의 성분 때문에 이런 부영양화를 야기시킨다.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내놓고 물위로 떠오르는 폐죽은 대개 이런 부영양화 현상에서 비롯된다.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물고기가 죽는 일 외

다.